

「기영회도(耆英會圖)」에 나타난 16세기 복식에 관한 연구

- 남자복식을 중심으로 -

최 지 희*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A Study on Dress During the 16th Century of *Chosun* Dynasty through “*Kiyeonghoido*”

- Focusing Men's Costume -

Ji-Hee Choi* · Na-Young Hong**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3. 4 투고)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dress styles during the 16th century of the *Chosun* dynasty, just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rough painting-*Kiyeonghoido*. In the *Chosun* period, dress styl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presenting the differences in social status. The most remarkable signs of social standing are the hair ornaments. Officials in ranks, *noksas*, and *seoris* are wearing a *samo*, a *yugakpyeongjeongeon* and a *mugakpyeongjeongeon* respectively. The head ornament for musicians in high ranks is a *samo*, and, for those in low ranks a hood or a *heuklip*. Accordingly, head ornaments were important articles among apparels, and especially *ripja* was an article that sensitively reflected the contemporary fashion. Such a trend also influenced the common people's styles of dress. Thus, the style of the *heuklip* worn by the chamberlain in *Kiyeonghoido* resembled of *yangban*'s. Actual official uniforms also diverged from the specifications for them. *Sangboks* were red for both *dangsanggwans* and *danghagwans*, but their ranks were marked by the material of their dress rather than by the breast plates.

Dress styles change over time as the society members influence and are influenced by each other. Therefore, owing to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a hierarchical society, dress styles are distinctive according to the wearers' social standings and roles, and various dress styles emerge that deviate from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paper is to review the diversity of the dress styles during the 16th century of the *Chosun* dynasty.

Key Words: *Kiyeonghoido*(耆英會圖), *sibok*(時服), *sangbok*(常服), petty officials' costume(衙前服), hair ornaments(首飾)

I. 서론

과거의 복식을 연구할 때는 회화자료·문헌자료·구전자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이 중에서 회화자료는 당시의 복식 형태와 착용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복식 분야에서도 회화자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기존의 연구는 김홍도(1745~1806)와 신윤복(1758경~1820경)의 풍속화가 많이 남아있는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18·19세기를 근거로 조선시대 전반의 복식을 유추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세계에서 500여년의 긴 세월을 이어온 왕조이며, 건국 초기와 후기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중간 시기에 발발(勃發)한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을 복식 변화의 큰 기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양란(兩亂)을 전후로 복식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영회도(耆英會圖)」(158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중심으로 회화자료·문헌자료·복식유물 등을 참고하여, 임진왜란 전인 16세기 조선시대 복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자료로 사용한 「기영회도」(그림 1)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6세기의 회화로, 배경을 생략하고 화면의 대부분이 연회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기록화 중에서도 인물·집기 등이 크고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상급관리, 하급관리, 악인(樂人), 남자 시종, 의녀, 여기(女妓) 등의 다양한 계층이 한 화면에 등장하므로,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여러 계급의 복식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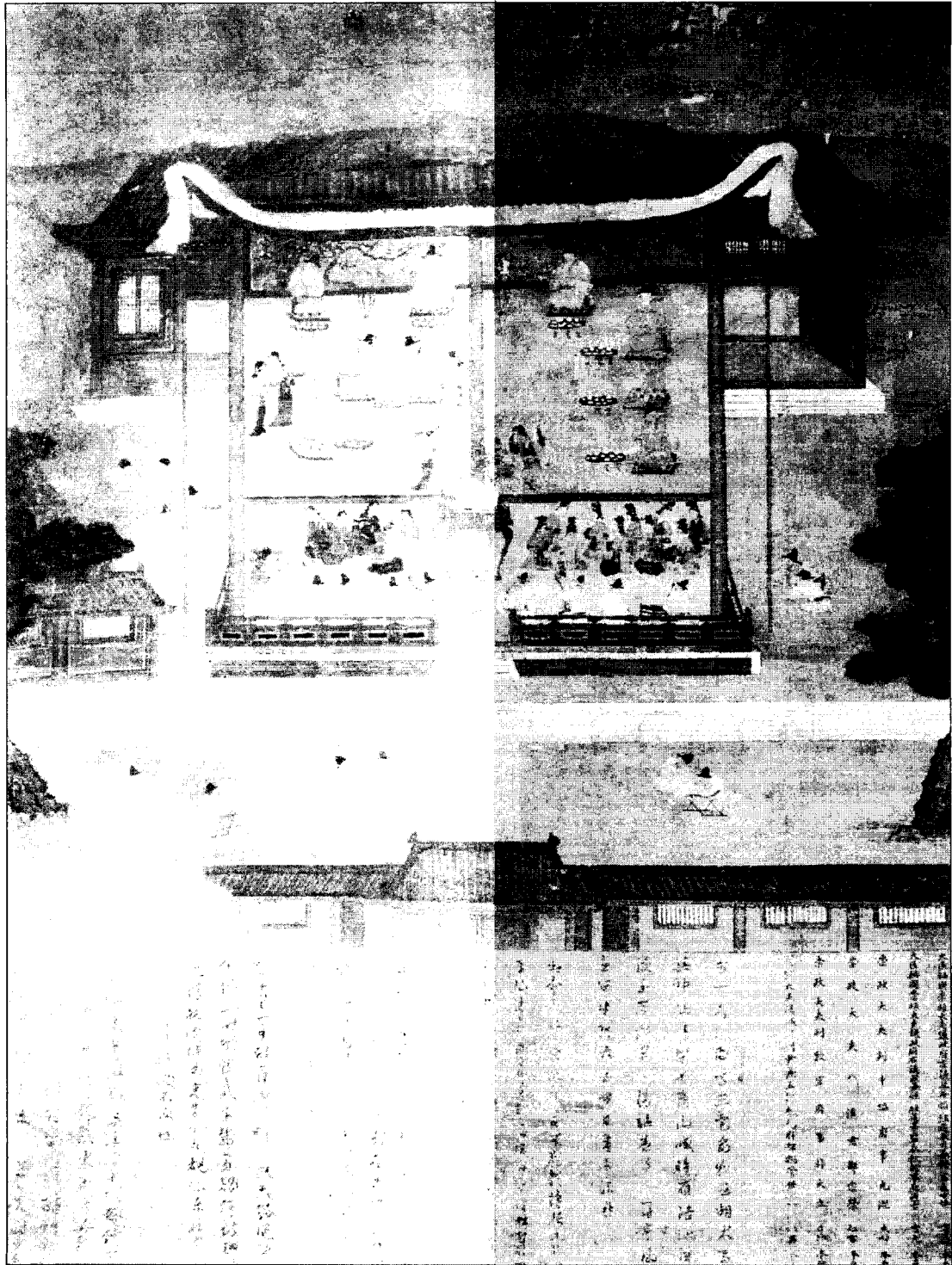
참고자료 중에서 회화자료는 기록화·초상화·불화 등을 참고하였으며, 초상화는 제작시기가 명

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까지 생존한 인물의 초상화를 범위로 하였다. 해당시기에 편찬된 문헌으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조선전기의 기본 법전(法典)인 『경국대전(經國大典)』(1481), 악서(樂書)인 『악학궤범(樂學軌範)』(1493), 의례서(儀禮書)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 등을 참고하였고, 동시대(同時代)의 문집(文集)과 복식에 관하여 서술한 후대의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복식유물은 착장자의 생몰년대가 정확한 사례를 위주로 하고,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까지 생존한 인물의 복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기영회도」의 배경

1. 사회적 배경

조선왕조는 효(孝)를 국시(國是)로 하였던 왕조였으므로, 조선초기 법전인 『경국대전』부터 노인우대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였다. 나이가 많은 고관(高官)들에게는 특별히 기영회·기료연 등을 하사하였는데, 금주령이 내려올 때나 흉년일 때에도 베풀 정도로 연로대신(年老大臣)을 우대하는 중요한 의례였다. 나라에서 기영회를 하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양기(陽氣)가 많은 삼진날과 중앙절에 베풀었으며¹⁾, 선은(宣醞, 임금이 내리는 술)과 악(樂)을 내려주었다. 선은은 승정원에 하교하여 승지 1명, 또는 승지 몇 명이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악은 여러 등급 중에서도 1등악을 내려주었다²⁾. 『조선왕조실록』에 특정한 날에 기영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총 43건이며, 장소가 명시된 31건 중에서 훈련원은 27건, 보제원 1건, 성균관 1건, 망원정 1건, 모화관 1건으로 대부분 훈련원에서 기영회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기영회도」(158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자미상 / 견본채색 / 163.0×128.5cm / 보물 1328호
* 출처: 『새천년 새유물』

2. 회화적 배경

조선시대에는 육조(六曹)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관청에서 동료들간의 결계가 성행하였다. 각 관청에서 관료가 부임하면 제명(題名)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처럼, 결계를 기념하는 문서를 만들 때에도 처음에는 제명의 의미가 있는 좌목(座目) 형태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후에 계획도를 제작할 때도 좌목은 계획의 성격을 나타내는 주요항목으로 등장한다. 16세기 조선시대 계획도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화면을 3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은 표제, 중단은 계획장면, 하단은 참석자들의 좌목과 시문(詩文)을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회화는 산수를 위주로 표현하는 경향에서 1550년 경을 전후하여 인물과 자연을 대등하게 표현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6세기 계획도에도 나타난다. 즉, 「미원계획도」(1540) 등의 전반기 계획도는 배경이 되는 산수는 크고 자세하게, 계획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현하는 반면, 1550년대부터는 계획이 옥내에서 주로 열리고 화면에서 계획장면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다. 따라서 1550년 이후의 계획도에는 건물 내에 앉아있는 참석자들도 훨씬 크고 자세하게 표현되며, 풍속화의 성격도 많이 나타난다³⁾.

계획도는 계획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임의 시기를 회화에 기록한 경우가 종종 있다. 「기영회도」에는 제작년대에 관한 별도의 기록은 없지만, 계획도의 특징인 좌목을 통하여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좌목은 다음과 같다.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領經筵事洪暹退
之本南陽忍齋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事監春秋
館事盧守愼寡晦本光州蘇齋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領經筵事監春秋
館事鄭惟吉元本東萊林塘
崇政大夫判中樞府事元混太初本原州西崖
崇政大夫八溪君鄭宗榮仁吉本草溪八溪
崇政大夫判敦寧府事朴大立守伯本咸陽無患堂
□憲大夫漢城府判尹兼五衛都總府都總管任說君
遇(本豐川)(竹)崖

위와 같은 좌목에 의하면 참석자는 홍섬(1504~1585), 노수신(1515~1590), 정유길(1515~1588), 원혼(1505~1588), 정중영(1513~1589), 박대립(1512~1584), 임열(1510~1591) 등 7명이다. 『선조실록』에서 참석자의 관직명이 모두 일치하는 시기는 선조 16년 11월 10일(1583년) 부터이고, 박대립이 사망한 선조 17년 6월 8일(1584년)까지의 기간에서 기영회가 삼진날과 중앙절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본 기영회는 1584년 삼진날에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III. 기영회도에 나타난 복식 분석

「기영회도」에는 행사의 모습이 크게 표현되면서 인물들의 자세와 표정도 세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대청에 7명의 인물이 표범무늬 방석 위에 앉아서 주칠(朱漆) 각상(各床)을 받고 있으며, 그 주위로는 여자들과 악인들이 있어 모임의 흥을 돋우고 있다. 마당에는 몸을 숙이고 앉아 있는 관리들과 음식을 나르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과 역할이 뚜렷하게 분류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남자는 좌목에 나타난 주(主) 참석자, 주 참석자와 비슷하게 사모와 흉단령을 착용하였지만 동쪽 마당에 앉아 있는 관리, 유각평정건을 착용한 녹사, 무각평정건을 착용한 서리, 악인, 남자 시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겠다. 이 중에서 녹사·서리·남자 시종 등으로 신분을 지칭한 까닭은 각 항에서 설명하겠다.

1. 좌목에 나타난 관리

각 참석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좌목을 다시 살펴보면, 좌목은 ‘직함-성명-자-본관-호’ 순서로 기술하므로⁴⁾,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領經筵事洪暹退之本南陽忍齋’ 라는 좌목에서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領經筵事’는 직함, ‘洪暹’은 성명, ‘退之’는 자, ‘南陽’은 본관, ‘忍齋’는 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홍섬의 직함에서 홍섬은 품

계가 대광보국승록대부이며, 중추부의 영사와 경연의 영사를 겸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각 참석자의 품수를 살펴보면, 홍섬·노수신·정유길은 정1품, 원혼·정종영·박대립은 중1품, 임열은 정2품 관리이다.

1) 복식의 명칭

「기영회도」에서 좌목에 나타난 관리는 사모, 흉배가 없는 홍단령, 대(帶)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림새는 조선시대 기록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복장이지만 『경국대전』에 나타난 관복(조복·제복·공복·상복) 규정에는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에서는 ‘시복(時服)은 1품에서 3품까지는 홍포(紅袍), 4품에서 5·6품까지는 청포(靑袍), 7품 이하는 녹포(綠袍)이다(『속대전』에는, 당상(堂上) 3품 이상은 담홍포(淡紅袍)이고, 당하 3품 이하는 홍포(紅袍)이다.)⁵⁾’라고 홍포(紅袍)를 착용하는 관복 중의 하나로 시복(時服)을 언급하였다. 이 부분은 『경국대전』의 기록을 옮긴 것인데, 실제로는 『경국대전』에 ‘시복’이라는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복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공복·상복에 못지 않은 착용 빈도수가 나타나는 관복의 하나이다.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으로 본 「기영회도」에 나타난 관복이 시복일 가능성을 살펴 본다면, 가장 뚜렷한 특징인 색상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시복 색상에 관하여 언급한

기록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선조대까지 시복은 흑색계통이다. 한편,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 장조(儀章條)에는 ‘조참, 상참에는 모두 흑의(黑衣)를 입는다.’는 구절이 있고, 세종 25년 6월과 중종 14년 6월에는 ‘조참, 상참에 시복을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경국대전』에서 언급한 흑의가 시복이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영회도」와 시대가 비슷한 1590년경에 김성일(1538~1593)이 일본에서 저술한 『조선풍속고이(朝鮮風俗考異)』⁶⁾나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芝峰類說)』⁷⁾에서도 시복을 흑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표 1>에 나타나듯이 광해군 2년에는 시복과 상복의 색상구분에 혼돈이 있었으며, 숙종 32년 7월에는 ‘상복(常服)은 곧 흑단령(黑團領)입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17세기부터 상복과 시복 색상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적어도 임진왜란 전까지 시복은 흑색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영회도」에 나타난 관복은 홍색이므로 시복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의 가능성으로 공복과 상복을 들 수 있다. 먼저, 흉배가 없는 홍단령이라는 점에서는 공복을 생각할 수 있다. 현종 9년(1668)에 이경석(1595~1671)이 계장을 하사받으면서 ‘공복(公服)’을 갖추었다는 글이 송시열(1607~1689)의 「영부사이공계장연서(領府事李公几杖宴序)」에 있는데⁸⁾, 이경석의 「사계장연회도(賜几杖宴會圖)」(1668)을 보면 이경석은 흉배가 없는 홍단령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이

<표 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시복 색상

연대	색상	비고
성종 18/01/29(경오)	흑색	.
성종 18/02/28(무술)	흑색	문맥으로 추정
중종 13/09/27(갑자)	아청색	.
중종 15/04/15(임신)	흑색	.
선조 34/06/08(갑술)	흑색	문맥으로 추정
광해군 02/05/19(계해)	흑색(?)	흑단령(黑團領)은 상복(常服)이라고도 하고 시복이라고도 함.
광해군 02/09/08(경술)	흑색	세상에서 말하기로는 홍단령(紅團領) 차림을 상복이라 하고 흑단령(黑團領) 차림을 시복이라고 함.
광해군 03/10/23(기축)	흑색	우리나라는 복색이 검은 옷을 시복이라 하고 붉은 옷을 상복이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함.
영조 33/12/16(갑술)	홍색→청록색	당하관의 시복은 홍포를 착용하지 말고 구제(舊制)대로 청록색을 사용하라고 명하였음.

간략하고 작게 묘사되어 있으므로 관(冠)의 종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윤국형(1543~1611)의 『갑진만록(甲辰漫錄)』⁹⁾과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¹⁰⁾ 등에 임진왜란 후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응방(應榜)할 때만 공복을 착용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경석의 「사계장연회도」에 복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송시열이 공복을 언급하고 『대전통편(大典通編)』(1785)·『대전회통(大典會通)』(1865)에서도 공복을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공복제도가 복구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 연구의 시대를 벗어나는 범위이므로 추후에 논의하겠다. 이외에 임진왜란 전의 회화로 공복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과거은영연도(科擧恩榮宴圖)」(1580)가 있으며, 여기에 나타난 과거합격자들은 복두를 착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영회도」와 「과거은영연도」의 시대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것 등을 생각하면, 「기영회도」의 관복은 사모를 착용하였으므로 공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영회도」에 나타난 관복의 명칭으로 다른 가능성인 상복(常服)을 생각한다면, 상복의 특징인 흉배를 수식(修飾)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중묘조서연관사연도(中廟朝書筵官賜宴圖)」(1535),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1550), 「선조조기영회도(宣祖朝耆英會圖)」(1585) 등의 회화에 이와 같은 차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착용예가 많았던 관복이므로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영회도」의 관복과 『경국대전』상복의 차이점인 흉배에 대하여 알아보면, 관복에 흉배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단종 2년 12월부터이다. 단종대에는 문무당상관의 상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산군 11년 11월에는 동·서반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흉배를 달도록 하였다. 그런데 단종 2년부터 연산군 11년까지의 기록 중에는 재상들의 흉배에 분별이 없다고 지적하거나, 시연하는 종재(宗宰)나 시위(侍衛)하는 재상들에게 흉배를 착용하도록 별도로 전교하는 것이 나타난다. 숙종 18년 12월에도 근래에 장복(章服)이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6품 이상은 흉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또

한 이육(1438~1498)의 『청과극담(靑坡劇談)』에는 ‘세조(世祖)가 등극함에 단자(段子)로 단령상복(團領常服)을 하는 것을 허락하되, 흉배는 등급이 있었다는 기록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나, 오히려 입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단지 조참(朝參)에만 입었다. 지금은 예연(禮宴)이 아니면 입지 않는다」¹¹⁾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어숙권(조선 중종대)이 편찬한 『고사촬요(攷事撮要)』에서는 ‘제복·공복·조복은 중국의 제도를 따른다¹²⁾’고 하였지만, 상복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숙권이 편찬한 『고사촬요』의 대상시기인 1550년대까지도 명나라의 제도와 같은 흉배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김성일도 『조선풍속고이』에서 양(梁)의 갯수에 따라서 양관의 등급을 설명하였는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흉배의 등급은 서술하지 않았다. 또한, 『영조실록』·『정조실록』·『순조실록』·『대전통편』 등에는 흑단령에서 흉배를 제거하여서 착용한다는 내용이 종종 등장하므로, 흉배는 착탈이 가능한 품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물을 살펴보았을 때, 김홍조(1462~1528)는 사망하기 2년 전에 정3품 관결사로 임명되었는데, 그의 묘에서 출토된 단령 7점은 모두 흉배를 달았던 흔적이 없으며, 별도의 흉배도 출토되지 않았다¹³⁾. 따라서 이상의 자료로 살펴보았을 때 「기영회도」에 나타난 관복은 상복으로 생각되며, 당시에는 흉배가 계급을 표시하는 기능이 크지 않았으므로 화공이 표시하지 않았거나, 흉배를 수식하지 않는 상복 차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2) 복식의 색상과 형태

관복의 세부적인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기영회도」에 나타나는 단령의 색상은 상대적으로 담홍색과 홍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속대전(續大典)』(1746)에서는 당상관은 담홍포, 당하관은 홍포로 농담(濃淡)을 구분하였지만, 「기영회도」의 제작시기는 『속대전』의 편찬시기보다 약 150년 전이며, 참석자가 모두 정2품 이상이므로 담홍포와 홍포의 구별은 품계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경외관회좌조(京外官會坐條)에 따르면 상석(上席)의 순서는 ‘북쪽-동쪽-서쪽-남

쪽'인데, 품계와 나이를 모두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홍색의 농담은 품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성종실록』 21년 2월에는 백관(百官)이 착용한 공복(公服)의 염색이 고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같은 품계에서도 홍색의 농담은 다양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영회도」에 나타난 홍포의 농담 차이는 법전에서 규정한 담홍포·홍포의 농담차이보다 작을 가능성과 회화가 부분별로 퇴색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회화에서 단령의 깃은 턱을 내렸을 때 닿는 정도의 깊이이며, 출토복식에 나타난 동시대의 단령을 살펴보면, 깃너비는 약 3cm로 후대(後代) 보다 좁다. 소매길이는 팔에 있는 주름정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손을 충분히 덮을 정도의 길이인데, 「중요조서연관사연도」(1535, 그림 2)에서는 소매가 무릎길이가까지 내려오고 있다. 중종 32년 1월에는 사대부는 물론이고 서민까지 소매길이가 길었으므로 금제를 제정하였으며,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1543)에서도 상세하게 표의(表衣)와 이의(裏衣)의 치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어숙권의 『패관잡기(裨官雜記)』에서는 의복길이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세상사람의 마음이 옛것을 좋아하고

새것을 꺼리며 또 조사하여 단속하는 자도 없으니, 오직 재상과 조관(朝官)이 대략 새 규례를 따를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예전대로 한다¹⁴⁾.'고 하였다. 『속대전』에서도 『대전후속록』의 내용에서 의복 치수를 약간 변화하면서 금제를 계속 시행하였다. 1572년에 사망한 정응두(1508~1572) 단령의 화장이 140cm로서, 1528년에 사망한 김흠조(1461~1528) 단령의 화장 126cm보다 길게 나타나듯이, 긴 소매를 선호하는 풍습은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화로서 소재를 알 수는 없으나, 출토복식에 나타난 남자 포(袍)의 소재는 사(紗)·라(羅)·롱(綾)·초(綃)·면주(綿紬)·면(綿)·마(麻) 등으로 다양하다. 품계별 소재 차이를 살펴보면, 『경국대전』에서는 당상관에게만 사·라·롱·단을 허용하였고, 『대전후속록』에서는 당상관 외에는 초(綃)·주(紬)·교기(交綺)·교직(交織) 단의(單衣) 및 표의(表衣)를 모두 금하였다. 1488년에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온 동월(董越)의 기록인 『조선부(朝鮮賦)』에도 '벼슬이 3품이 아니면 기(綺)·수(繡)로 몸을 꾸밀 수 없으며, 낮은 벼슬아치는 모두 주포(紬布)를 입고, 저사(紵絲)는 입지 않는다¹⁵⁾.'



<그림 2> 「중요조서연관사연도」(1535, 흥대 박물관 소장) 중 연회장면

* 출처: 『조선시대 연회도』

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패관잡기』에 따르면, 1546년에 명나라를 간 조선사신(朝鮮使臣)은 명나라 사람에게 조선 의복의 등급을 설명하면서, 앞에 나타난 『경국대전』의 조목을 대표적으로 들었다¹⁶⁾. 『조선풍속고이』에서도 ‘상복(常服)에는 견(絹)·면(綿) 2등급이 있다¹⁷⁾.’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부』 이하의 문헌들이 흉배는 언급하지 않고 소재의 등급만을 밝힌 것을 볼 때, 16세기에는 흉배보다는 의복 소재의 등급이 품계를 상징하는 비중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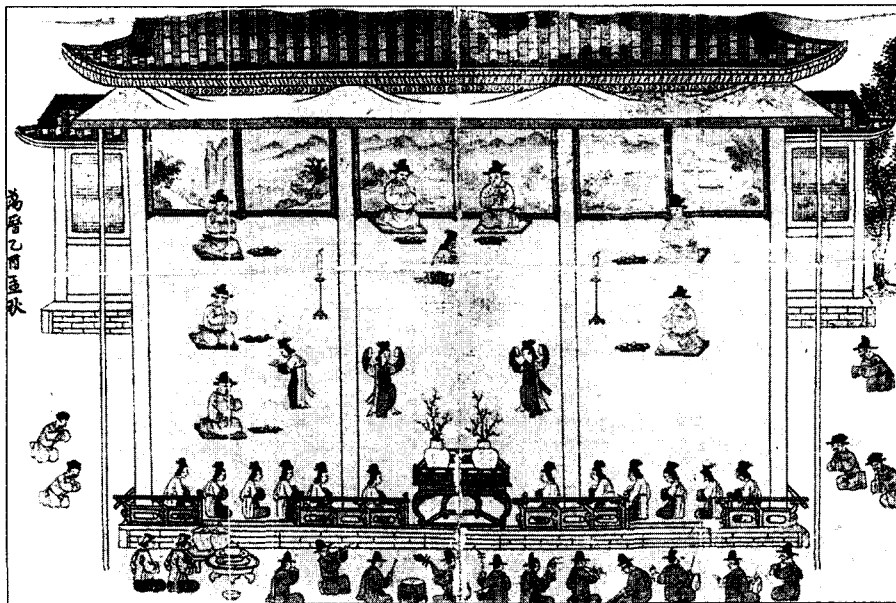
2. 사모에 홍단령을 착용하고 동쪽 마당에 있는 관리

「기영회도」에는 사모에 홍단령·갈색 대(帶)를 착용한 차림으로 동쪽 마당에 엎드려 있는 인물이 있는데, 「선조조기영회도」(그림 3)에도 같은 위치에 비슷한 차림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주 참석자와 마찬가지로 사모에 홍단령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상복으로 생각되지만, 본 관리의 신분에 관한 별도의 기록은 없다. 따라서 기영회에 참석하는 다

른 관리를 찾아보면, 먼저 선운을 들고 가는 승지가 있다. 그러나, 좌목에 나타난 참석자보다 품계가 낮더라도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데 옥외에 엎드려 있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영회가 열리는 관청의 관리일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관청에는 정2품에서 종9품까지 다양한 품계의 관리가 근무한다. 『경국대전』에서 3품 이하의 상복 규정을 살펴보면, 공복은 관(冠)·복(服)·대(帶)·홀(笏)·화혜(靴鞋) 등의 각 품목별로 서술한 반면, 상복은 관과 대의 등급만을 밝혔다.

이외에 다른 문헌에서 의복(衣服)을 살펴보면, 광해군 2년 9월과 동왕 3년 10월에 세상에서 홍단령 차림을 상복이라고 한다는 기록과, 『지봉유설』에 홍단령을 상복이라고 하고 국속(國俗)에 전부터 관직이 있는 사람은 모두 홍단령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정5·정6품 관리들의 계획도인 「호조낭관계회도」(그림 4)에도 사모와 홍단령 차림이 나타나므로, 당상관과 당하관이 모두 홍단령을 상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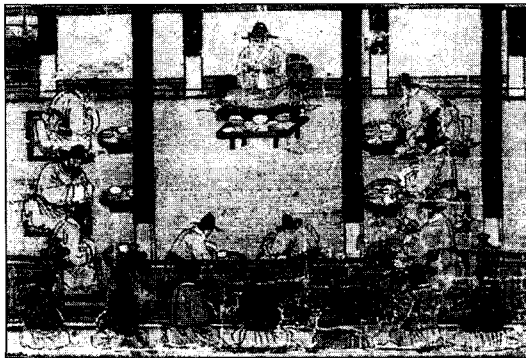
「기영회도」에서 해당하는 관리의 품계를 보다



<그림 3> 「선조조기영회도」(1585, 서울대 박물관 소장) 중 연회장면

* 출처: 『한국전통회화』

자세하게 살펴보면, 『경국대전』의 상복규정에서 중 3품~4품은 소은대(素銀帶), 5~9품은 흑각대(黑角帶)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영회도」의 관리와 「호조낭관계회도」의 참석자는 갈색 대를 착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호조낭관계회도」의 참석자는 정5·정6품이므로 흑각대를 착용하였을 것이며, 「기영회도」의 해당 관리도 흑각대를 착용한 5품 이하의 관리로 추측된다.



<그림 4> 「호조낭관계회도」(155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 연회장면

* 출처: 『풍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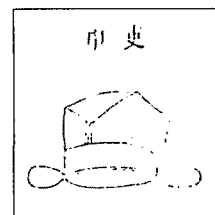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과 같이 당상관과 당하관이 모두 사모·홍단령을 착용하였다면, 품계를 시각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의복의 소재와 대의 등급이다. 대와 품계의 관련성은 이덕형(1566~1645)의 『죽창한화(竹窓閑話)』¹⁸⁾, 허봉(1551~1588)의 『해동야언(海東野言)』¹⁹⁾, 차천로(1556~1615)의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²⁰⁾ 등에서, 언급한 대의 종류와 해당 인물의 품계가 일치하는 것이나, 대의 종류만으로 인물들의 품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가 신분을 상징하는 비중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호조낭관계회도」(그림 4)에서 상석(上席)의 인물과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각각 착용하고 있는 대의 시각적 차이에서도 알 수 있다.

3. 아전(衙前)-녹사(錄事), 서리(書吏)

「기영회도」에는 평정건(平頂巾)을 착용하고 동

쪽 마당에 앉아 있는 인물과 서쪽 마당에 앉아 있는 인물들이 있다. 「선조조기영회도」(그림 3)에도 유사한 복장을 한 인물들이 같은 구도로 배치되어 있는데, 동쪽 인물이 1명 더 있다. 「기영회도」에서 동쪽 마당의 인물은 뒷모습만 보이며, 각(角)이 있는 평정건과 녹색 대를 착용하고 있다. 서쪽 마당에 있는 인물의 복식은 동쪽 마당의 인물과 비슷하지만, 평정건에 각이 없고 홍단령에 녹색 대를 착용하고 있다. 양쪽 마당에 건을 착용한 인물들의 의복 형태가 서로 유사한 점이나 「선조조기영회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과 비교하여 볼 때, 동쪽마당의 인물도 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차림새는 『경국대전』의 관복 규정에서 동쪽 마당에 있는 인물은 녹사(錄事), 서쪽 마당에 있는 인물은 서리(書吏) 복식과 일치한다. 따라서 해당 인물이 녹사와 서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녹사건(錄事巾)은 『삼재도회(三才圖會)』(명대)에 나타난 이건(吏巾, 그림 5)과 명칭과 형태가 유사한데, ‘이건(吏巾)은 사각형 정수리에 앞부분은 위로 올라가고 뒷부분은 누웠으며 양쪽에 날개[翹]가 있는 형태인데, 육공조(功曹: 錄事)가 착용하기 때문에 이건으로 불렀다²¹⁾.’고 한다.



<그림 5> 『삼재도회』(명대) 중 이건
* 출처: 『삼재도회』

녹사·서리의 관복규정을 보면 녹사는 상급아전, 서리는 하급아전인데 관복은 각의 유무만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각이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례로 연산군 12년 5월의 기록에는 ‘사모의 각(角)이 어깨 위로 늘어지게 한 것은 군상(君上)이 아랫사람을 제어하는 뜻이다.’는 내용이 있다. 조재삼(조선 순조대)의 『송남잡지(松

南雜識)』에도 각을 날개로 해석하여서 ‘날개[翼]는 비상(飛上)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백관(百官)의 관을 상징하니 사모(紗帽)이며, 날개가 서있는 것은 임금의 관[翼善冠]이 되었고, 서리의 관(冠)은 날개가 없으므로 승두(蠅頭, 파리승·머리두)라고 한다²²⁾.’는 기록이 있다. 이때, ‘승두’라는 명칭은 전(轉)하여 자잘한 것에 비유²³⁾되기도 하는 것으로, 『국학도감』에서 평정건을 ‘파리머리’라고 한 것²⁴⁾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각은 옷감으로 머리를 감싼 나머지를 내려뜨린 것이 시초였지만, 오랜 사회적 영향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4. 남자 시종

『기영회도』에서 입자(笠子)와 백색 직령을 착용하고 옥외에 있는 8명은, 2명씩 모여서 음식을 나르거나 의자에 기대어있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 8명이 같은 복식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경국대전』에서 복식을 언급한 별감·대궐 안의 차비·길잡이·나장·조예의 관복 규정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외의 가능성으로, 주 참석자를 따라온 시종을 생각할 수 있다. 시종은 『경국대전』에서 근수(根隨)로 언급한 인물들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수는 관원을 수행하는 노자(奴子)이며 인원수는 대군·왕자군의 여부, 품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²⁵⁾.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도 문장으로 서술한 것과 표로 명기한 인원수가 다르므로 어느 규정에 따르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근수의 역할이나 복식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으므로, 좀 더 넓은 의미로 남자 시종으로 명명하겠다.

1) 입자(笠子)

『기영회도』에서 남자 시종과 악인들은 모정(帽頂)이 둥근 형태의 입자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김진초상화(金鎭肖像畫)」(1572, 그림 6)와 「호조낭관계회도」(그림 4)에 나타난 흑립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시종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흑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은영연도」에도 나타난다.



<그림 6> 「김진초상화」(1572, 한국 개인 소장) 중 부분
* 출처: 『인물화』

반면, 조극선(1595~1658)의 『삼관기(三官記)』에는 ‘우리나라 서민들은 옛날에 모두 평량자(속칭 蔽陽子)를 썼다. 그 제식이 대[竹]를 엮어서 만들어서 모양을 소색(素色)으로 하였으며, 역졸만은 흑색으로 하여서 썼다.속칭 양반이 흑립자(黑笠者)라는 것은 서민들이 쓰는 평량자 색이 소색이기 때문이다. 임진란 때 왜적이 양반을 만나면 반드시 죽이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일시에 대소인이 모두 평량자를 썼다²⁶⁾.’고 서민들과 양반들의 입자 색을 구분하는 내용이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증보문헌비고』²⁷⁾, 이극익(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²⁸⁾, 최남선(1890~1957)의 『조선상식(朝鮮常識)』²⁹⁾ 등에 있는 것을 볼 때, 조선후기까지 이러한 설(說)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과 법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서민들의 입자 색을 규정하는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양란으로 복식제도가 변화하기 전이며, 조선후기의 문헌보다 『기영회도』의 제작년대와 가까운 문헌인 『조선부』에는 ‘백성들이 초모(草帽)를 쓰는데 모두 흑색[黑旅]이고 그 꼭대기는 둥글거나 모가 있다³⁰⁾.’는 내용이 있다. 『기영회도』에서 흑립(黑笠)을 착용한 인물들은 화면에서의 위치·자세·역할·전체적 복식을 살펴

보았을 때, 양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영회가 열린 장소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 서울이나 동대문·서대문 근처³¹⁾이고 참석자들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므로, 역졸로 생각하는 것에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양반과 서민의 입자색상으로 구분된다는 설은 와전되었거나 후대에 바뀐 풍습으로 생각된다.

중종 36년 12월에 서민이 친영(親迎)할 때의 복식으로 입자(笠子)에 조아(條兒)만을 언급하였듯이, 조선시대에 입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품목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외에 여러 문헌에서도 입자에 관하여 많은 언급을 하고 있으며, 조정에서는 입제(笠制)를 통일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금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저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장인(匠人)들은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대우 높이와 양태 넓이 등을 조절³²⁾하였고, 금제는 시행이 잘 되지 않았다. 이처럼 입자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지만, 문헌과 회화를 살펴보면 동시대(同時代)에서도 사람마다 입자의 형태가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 제약이 있는 계층이라도, 복식의 유행을 따르고 그 안에서 개인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은 고금에 공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입자는 소재에도 민감해서, 이에 대한 금제도 많았다. 『경국대전』에서는 초립의 죽수를 사족(士族)과 서인(庶人)별로 구별하였으며, 사족의 입자로 마미립(馬尾笠)·부죽립(付竹笠), 서인의 것으로 죽직립(竹織笠), 승결립(繩結笠)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종립(鬃笠)에 대해서 『대전속록(大典續錄)』(1492)에서는 조사(朝士)에게, 『대전후속록』에서는 당상관에게만 허용하고, 무직인(無職人) 및 공(工)·상(商)은 부죽립(付竹笠)·승립(繩笠)·과라립(裹羅笠)을 금하고 있다. 이중에 과라립은 한자 뜻으로 해석한다면 입자를 라(羅)로 덮은 것으로,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에는 없는 품목이다. 입자가 유행에 민감하였다는 것을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반과 서민이 모두 흑립을 착용하였다면, 사람들의 입자는 전체적인 형

태·색상이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입자에서 계급을 표시하는 기능은 시각적 차이가 큰 입영(笠纓)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화를 살펴보았을 때도 「호조낭관계회도」(그림 4)에서 상석(上席)의 인물과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의 입영·정자(頂子)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경국대전』의 품계별 입영 규정과 『대전후속록』의 입영 금제도 입영의 신분상징에 따른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이계신(1536~1583)의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鯨鱗瑣語)』³³⁾·조극선의 『삼관기』³⁴⁾ 등에서 입제의 변천을 설명할 때, 대(臺)의 형태를 등과·바리때 두경·복자(覆子)에 비유한 것과 당시의 회화에 나타난 형태 등을 감안하면, 광해군대까지의 입자는 대(臺)의 옆선이 곡선을 이루고 모정은 평평하다 할지라도 맨위에만 약간 편평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후기까지의 감로병화를 고찰하였을 때도, 16세기까지는 모정이 둥근 흑립이 보다 일반적이었으며, 17세기가 되어서야 조선후기의 흑립양식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⁵⁾.

2) 의(衣)

「기영회도」의 남자 시종들은 백색 의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저고리·포·바지 등의 품목이 나타난다. 포의 길이는 발등을 덮을 정도에서 허리길이 정도로 다양하다. 이들의 포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길이와 소매길이·넓이·트임의 유무는 비례하지 않으며, 길이가 긴 포 중에서도 트임이 보이는 것·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남자 시종들의 포와 유사한 복식유물을 찾아보면, 길이가 120~130cm내외이고 옆이 트인 포는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반면, 길이가 100cm내외의 짧은 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유물이 대부분 양반계급의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기영회도」에 나타난 포와 소매통·트임·길이 등의 세부사항이 일치하는 형태의 복식유물은 보이지 않으므로, 유물로 확인되는 형태 외에도 다양한 포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영회도」의 남자 시종들은 포에 허리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화상으로

띠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관리·악인 복식에서 대(帶)가 분명하게 표시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앞에서 서민이 친영할 때의 복식으로 조아를 언급하였듯이, 대는 관복·의례복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품목으로 보인다.

회화에서 의복선이 부드럽고 주름이 많은 것을 볼 때, 의복 소재는 부드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서민의복의 소재에는 많은 금제가 있어서, 『대전후속록』에서는 공(工)·상(商)·천예(賤隸)·서인 남녀들은 초(綃)·주(紬)·교기(交綺)·교직(交織) 단의(單衣) 및 표의(表衣) 외에 유겹의(襦袂衣)도 금하고 위반하는 사람은 사·라·릉·단의 예에 의하여 벌하도록 하였다. 『조선풍속고이』에서도 ‘서인들은 예복이 없고, 다만 포(布)와 면(綿)으로 상복(常服)을 할 뿐이며 사(絲)와 저(苧) 이상은 입지 못한다³⁶⁾.’고 하였다. 한편, 『조선부』에는 ‘옷이 모두 소백색(素白色)이고 옷감 울(布縷)이 많이 굵다³⁷⁾.’는 기록이 있다. 16세기 서민의복의 색상을 살펴보면, 『경국대전』에서는 관리의 백색 겉옷은 금지하고, 서인에게는 백의(白衣)를 허용하지만 홍의(紅衣)·자의(紫衣)·자대(紫帶)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인들이 백색 의복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봉유설』에는 당시에 조선사람들이 백색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지만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를 금지하였으며, 저자인 이수광이 어렸을 때는 관직이 없는 선비라도 나들이 할 때는 반드시 홍의직령(紅衣直領)을 입었는데, 대체로 1565년 이후 여러 번의 국상(國喪)으로 계속하여 백색 옷을 입는 것이 풍속이 되어 지금은 홍직령을 입는 사람은 없어졌다는 글³⁸⁾이 있다. 또한 ‘근래에는 사·서인이 얇은 비단옷을 껴입고 창기(娼妓)·천인도 채색비단을 입는다³⁹⁾.’고 하였다. 그리고 『대전후속록』에는 대홍의(大紅衣)·자색의(紫色衣)를 금하는 내용이 있고, 명종 8년 10월의 기록에는 노복의 의복이 선비보다 사치스럽다고 개탄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영회도」에서 서민으로 생각되는 남자 시종의 복색은 백색만이 나타나지만, 당시에 서민들이 색상이 있는 의복을 착용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5. 악인(樂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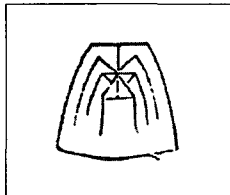
「기영회도」에 나타난 악인들은 중앙에서 박(拍)을 들고 있는 악사를 중심으로 총 9명이 남쪽에 일렬로 앉아서 악(樂)을 연주하고 있다. 악공들은 흑립과 저고리·포·녹색 조아 등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영회의 사악(賜樂) 등급을 기록하였을 때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두 1등악이었다. 사악의 등급은 악사(樂師)·여기(女妓)·악공(樂工) 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악학궤범』에 명기된 바에 따르면 1등악은 악사 1명, 여기 20명, 악공 10명의 규모⁴⁰⁾였다. 그러나 「기영회도」에 나타난 인원수는 악사 1명·여기 15명·악공 8명이기 때문에 『악학궤범』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처럼 대부분의 사연도(賜宴圖)에도 규정과 다른 사악 형태가 나타난다.

사악에서 악사와 악공이 구별되어서 나타나므로 악인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악인은 신분상 양인(良人)과 속인(俗人)으로 나누어진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아속악조(雅俗樂條)와 이전(吏典) 잡직조(雜織條)에 의하면 아악은 악사 2명, 악생 297명에 모두 양인이며, 속악은 악사 2명, 악공 518명, 노래하는 아이 10명에 모두 공천(公賤)이었고, 양인이 속악에 배속되기를 원할 때는 허락하였다. 장악원에 소속된 악인은 악사, 악생, 악공으로 역할이 구분되어지는데, 악생과 악공은 취재(取才)를 통하여 바로 임용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악사는 장악원에서 악에 종사한 경력이 가장 오래되고 음률에 정통하여 악공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였다. 대부분의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근무처를 이동하는 반면, 악사·악공·악생들은 모두 장악원에 계속 근무하며, 근무일수가 1,200일이면 품계가 올라가되 정6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처럼 악사와 악공의 신분·역할에 차이가 있듯이 이들의 복식도 구분된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기영회는 사악에 해당하므로 기영회도에서 악사는 상복(常服), 악공은 녹색명주 두건·토홍색 단령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선조조기영회도」(그림 3)의 악사는 이와 같은 『악학궤범』의 규정과 유사하게 사모·홍의(紅衣)·품

대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영회도」의 악사는 악공의 것과 유사한 담홍색 포를 착용하여서, 의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수식(首飾)은 악공의 흑립과 달리 사모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공이 착용하는 두건은 『악학궤범』에 <그림 7>과 같이 표현되어 있으며, 유사한 형태가 「중묘조서연관사연도」와 「과거은영연도」에 나타난다. 그러나 「기영회도」와 「선조조기영회도」의 악공은 「기영회도」의 남자 시종들이 착용한 것과 같은 흑립을 착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 두건을 착용하였지만, 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와 함께 「기영회도」에서 악인들의 의복 색상을 살펴보면, 악사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옷은 홍색이 나타나지만, 동쪽 사람들은 백색에 가깝다. 그러나 소매끝을 볼 때 받침옷(저고리)의 백색과 색상차이가 있으므로, 주 참석자들의 흉단령 색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의복의 염색 차이나 세월에 따른 퇴색 등으로 생각된다.



<그림 7> 『악학궤범』(임진왜란 前本) 중 두건

* 출처: 『악학궤범』

IV. 결 론

본 연구의 대상시기인 임진왜란 전의 16세기는 조선왕조의 문물제도가 안정되었던 시기이다. 조정(朝廷)에서는 각 계급별로 복식에 차별성을 두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중요성을 두었고, 사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많은 금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복식양상은 시대와 착용자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므로, 규정의 시행여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규정과 함께 실제 착용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과 시각자료인 기록화·풍속화·유물 등을 통하여 임진왜란 전인 16세기 조선시대 복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중심자료인 「기영회도」에는 상급관리·하급관리·남자 시종 등이 한 화면에 등장하므로, 각각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복식이 나타난다. 남자들은 정1품 관리에서 시종까지 차례대로 서열이 나누어지는 계층이 등장하며, 계층간에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품목은 수식(首飾)이 있다. 품계가 있는 관리와 품계가 없는 아전은 각각 사모와 평정건으로 등급을 표시하였고, 악인의 경우에도 의복은 서로 유사하더라도 그 중에서 품계가 높은 악사는 사모, 품계가 낮은 악공은 두건 또는 흑립 등으로 수식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사모는 평정건·두건·흑립보다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수식이었다. 또한 상급아전인 녹사는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 하급아전인 서리는 무각평정건(無角平頂巾)을 착용하였으므로, 각의 유무가 신분의 상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帶)도 신분별로 서대·금대·각대·조아 등으로 차이를 두었다. 따라서 당시에 수식과 대는 복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품목이었다. 특히 입자는 유행에 민감하여서, 16세기 입자는 모정(帽頂)에 평평한 부분이 없거나 조선후기처럼 넓지 않고 대(臺)의 옆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것이 기본 형태였지만, 대의 높이·양태의 넓이 등은 유행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긴소매를 선호하여서 신분별로 소매길이를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유행은 서민층에까지 계속되었다.

『경국대전』의 관복규정도 실제 착용상과 차이가 있어서, 『경국대전』에 명칭이 언급된 조복·제복·공복·상복 외에 시복도 착용되었다. 16세기에 시복은 조선후기 문헌에 홍색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흑색계통이었으며, 홍색은 상복의 색상으로 사용하였다. 당상관과 당하관이 모두 홍색을 상복으로 삼았는데, 『경국대전』에서 품계별로 흉배의 등급을 구분한 것과는 달리, 16세기에는 상복에 흉배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복의 등급은 흉배보다는 의복소재에 따라서 구분되었다. 신분에 따라서 소재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품목에도 해당되어서, 입자의 경우에는

조선후기의 속설과는 달리 서민도 흑립을 착용하였지만, 흑립 중에서도 종립·마미립 등으로 고급 소재를 사용한 것은 조사 또는 당상관만이 착용할 수 있었다. 입영과 정자도 신분별로 소재에 차등을 두었던 대표적인 품목이었다.

이상으로 「기영회도」에 나타난 복식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전인 16세기 조선시대 복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입자·포 등과 같이 조선후기까지 착용하는 품목이라도 16세기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분사회였던 사회적 특성상 신분·역할별로 복식이 구분되지만, 「기영회도」에서 서민으로 추정되는 남자 시종들의 흑립이나 포가 당시 양반들의 복식과 유사한 것과 같이, 엄격한 신분사회에서도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복식유행이 존재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전의 16세기가 15세기 후반에 편찬된 법전과 의례서 등이 큰 변화 없이 적용될 시기였지만, 실제 복식양상에 있어서는 규정과 다르거나 규정에 나타난 것 외에 다양한 복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성현 저, 이혜구 역 (2000). *樂學軌範 卷之二 俗樂陳設圖說 時用賀禮及宴享樂*. 서울: 국립국악원. p. 188.
- 2) *成宗實錄* 11年 3月 3日(癸未), 20年 9月 9日(甲子), 21年 9月 9日(戊午), *中宗實錄* 2年 9月 9日(己酉).
- 3) 안휘준 (1994). *한국풍속화의 발달, 풍속화*. 서울: 중앙일보사. p. 172.
- 4) 법제처 역 (1993). *經國大典 卷之一 吏典 京官職條*.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p. 31, pp. 35-54.
- 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1981).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二十六 章服一 朝鮮*.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256.
- 6) 김성일 저, 정선용 역 (1999). *鶴峰全集 鶴峯集 卷六 風俗考異*.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21-22.
- 7) 이수광 저, 남만성 역 (1994). *芝峰類說 服用部 朝章*. 서울: 을유문화사. p. 415.
- 8) 송시열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1993). *宋子大全 卷百三十七 序 領府事李公几杖宴序*.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537-538.
- 9) 윤국형 저, 권덕주 역 (1975). *大東野乘 X IV 卷之五十五 甲辰漫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96.
- 10) 이수광 저, 남만성 역 (1994). *앞의 책*. p. 415.
- 11) 이육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1). *大東野乘 II 卷之六 靑坡劇談*.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32.
- 12) 어숙권 저, 한국도서관학연구회 편 (1974). *攷事撮要 風俗*. 서울: 남문각.
攷事撮要: 조선시대의 事大交隣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엮은 類書. 어숙권이 엮은 것은 1554년까지의 것이며, 그후 허봉이 1585년까지의 것을 추록하고, 다시 박희현이 1612년까지의 사례, 최명길이가 1636년까지의 기록을 각각 증보하였다(<http://www.encyber.com>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13) 이은주 (1998). *조선전기 斂襲衣의 일례-김홍조(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15, pp. 94-105.
- 14) 어숙권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4). *大東野乘 I 卷之四 稗官雜記 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479.
- 15) 董越 저, 윤호진 역 (1994). *朝鮮賦*. 서울: 까치. p. 42.
- 16) 어숙권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4). *앞의 책*. p. 465.
- 17) 김성일 저, 정선용 역 (1999). *앞의 책*. pp. 21-22.
- 18) 이덕형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5). *大東野乘 X VII 卷之七十一 竹窓閑話*.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62.
- 19) 허봉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1). *大東野乘 II 卷之九 海東野言 三*.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432.
- 20) 차천로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1). *大東野乘 II 卷之五 五山說林草叢*.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56.
- 21) 王圻 저, 成文出版社有限公司 편 (1970). *三才圖會 衣服一卷*. 臺北: 成文出版社有限公司, pp. 1515-1517.
- 22) 조재삼 저, 임기중 편 (1987). *松南雜識 衣食類*. 서울: 동서문화원. pp. 2029-2030.
- 23) 민중서림편집국 편 (2000).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p. 1840.
- 24) 이훈중 (1970). *국학도감*. 서울: 일조각. p. 19.
- 25) 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1986). *譯註 經國大典*.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p. 620, p. 738.
- 26) 조극선 (未詳). *治谷先生集 卷之四 三官記 目官*. 서울대학교 규장각 마이크로필름.
- 2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1981). *앞의 책*. 卷八十 禮考二十七 章服二 雜服 朝鮮, p.295.
- 28) 이금익 (1800).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冠服*. 서울대학교 규장각 마이크로필름.
- 29) 최남선 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 편찬위원회 편 (1993). *朝鮮常識 衣服篇 平涼子*. 서울: 현암사. p. 469.
- 30) 董越 저, 윤호진 역 (1994). *앞의 책*. pp. 81-82.

- 31) 최영준 (1998). 18·19세기 서울의 지역분화. 민족문화연구, 31, pp. 21-24.
- 32) 中宗實錄 25年 5月 18日(丁未).
- 33) 이제신 저, 김주희 역 (1975). 大東野乘 X IV 卷之五十七 清江先生鯨鱗瑣語.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395.
- 34) 조극선. 앞의 책.
- 35) 홍나영, 김소현 (1998). 궁중승불도에 나타난 16세기 복식연구. 복식, 38, p. 315.
- 36) 김성일 저, 정선용 역. 앞의 책. pp. 21-22.
- 37) 董越 저, 윤호진 역. 앞의 책. pp. 81-82.
- 38) 이수광 저, 남만성 역. 앞의 책 君道部 法禁, pp. 121-122.
- 39) 앞의 책. 服用部 衣服, p. 413.
- 40) 성현 저, 이해구 역. 앞의 책. 卷之二 俗樂陳設圖說 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 p. 139.